제1차 정책세미나(건축산업 진흥)
2025. 11. 17.(월)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인 사 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진 애

안녕하십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애입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염태영, 천준호, 한준호 국회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건축산업의 대전환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넓다고 봅니다. 같이 해주신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단체에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절실한 과제를 풀어가야 할 우리는, 이 시대의 동지입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만 해도, 급성장·급팽창하는 건축의 산업적 측면보다 우리의 공간문화와 도시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건축의 역할과 민간전문가의 정책 결정 참여를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건축이 문화이자 예술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고,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라는 제도로 건축가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이슈는 꽤 달라졌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건축산업의 중간 생태계 토대를 무너뜨리고, 거대 자본과 허영 풍토에 휘둘리면서 건축산업의 건강성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거품에 휘둘리면서,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더 실용적인 비용으로, 더 믿을 수 있게' 하는 건축 본연의 기능을 받쳐주어야 할 R&D 투자, 제도 혁신, 현장 여건 개선이 뒷전에 밀려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의욕적인 젊은 재능이 사장되고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도태되기도 합니다. 한편,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함께 우리의 건축생산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수요가 변화하면서 건축경영 혁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바꿉시다. 진짜로 건축산업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은 실체와 규모를 지닌 산업입니다. 건축은 160여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업의 연간 매출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며,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중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건축산업정책은 '민간 건축'을 받쳐줄 제도 혁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국내 건축물의 97.1%가 민간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3,000㎡ 미만의 중소규모 건축물이 97.5%에 달합니다. 공공건축물의 향상 이상으로 빙산과도 같은 민간건축의 혁신을 받쳐줄 제도를 고민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건축산업정책은 '기술 발전 · 융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의 다양화, 도시의 노후화, 지역 양극화, 산업 안전과 환경 위기 등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산업정책은 스마트 기술 활용과 공법과 제조의 혁신과의 융합을 통한 건축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건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 사업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분양 · 임대, 운영 · 관리 등 건축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TQM(Total Quality Management)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간 체험의 사회 · 문화적 영향까지 다룰 수 있는 총체적 '공간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세미나가 건축산업에 대한 '사고(思考)의 대전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건축산업의 진짜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실천적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 11. 1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애